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51

2015. 7. 5

창립27주년 기념호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오늘의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 2:10~1

오늘의 주요기사

2. 창립27주년 특집
4. 전교인수련회
5. 목회 칼럼
7. 2015년 임직자 소개
8. 창립27주년 기념 시상토론

7/5(주) 성찬주일

7/13(화) 정기당회

7/15(수) 2/4분기 제직회

7/23(목)~25(토) 전교인 수련회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글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은 6월 28일 3부예배의 임직식. 장로 1명, 안수집사 14명, 권사 13명이 이날 성도, 가족, 친지의 축하 속에서 안수를 받았다. 올해 표어인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 아래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소임을 다할 일만이 이제 이들에게 남았다.

표어로 본 주님의교회 27년

지난 6월 24일로 주님의교회는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6월 28일은 창립주일로, 3부 예배에서 창립 27주년 기념행사와 임직식이 진행되었고, 창립 27주년 기념음악회가 6월 24일 임마누엘 찬양대와 주오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펼쳐졌다. 성년을 지나 청년기에 이른 주님의교회의 역사를 연간 표어를 통해 되돌아본다.

행함, 헌신, 고백

주님의교회는 1988년 6월 서울 용산구 여성청년교육원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세워졌다. 창립한 해부터 교회가 강조한 말씀은 “내 앞에서 행하라”는 행함과 “나를 보내소서”라는 헌신,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었다. 창립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교역자와 향존직의 임기제를 만들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전통을 만들었으며, 무기명으로 헌금을 드려서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됨을 나타내려 하였다.

“기억하고 예비하라”는 말씀 아래 정신여고와 강당건축 및 사용

에 합의를 이루어 교회 건물을 따로 소유하지 않는다는 창립정신을 지켰다. 늘어나는 성도 수와 갖추어진 외형적 모습에서 창립정신을 새 환경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시기 주님의교회 말씀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였다.

청소년 사역과 선교의 확장

성도의 신앙성장과 더불어 자라는 청소년들의 귀중함을 깨닫고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며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격적인 청소년 사역을 전개하였다. 이후 주님의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역할에 초점

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내려놓음과 “주 안에서 하나라 우리 함께 기뻐하세”라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교육과 선교 사업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주님의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 속에서 성장해왔다. 앞으로의 주님의교회 또한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단지 교회의 정형화된 제도나 형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온 교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분위기가 교회에 충만해야 할 터이다.

>3면에 계속

창립27주년 특집 | 담임목사 기념사

미래의 주님의교회를 소망하며!

에벤에셀!

지난 27년의 역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날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무거운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갖도록 도우신
주님의 손길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너무나 버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힘겨울 것입니다.

“주님의교회”
우리가 모인 것도 이 이름 때문입니다.

이 이름에 우리의 정체가 담겨져 있고,
이 이름에 우리의 사명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에 우리의 미래도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퇴색되는 날,
우리 모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의 자람이 될 때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개혁하는 용기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족속에
게서 거룩히 여겨질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교회가 주님의 교회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주님께만 영광 돌려 드리는 교회,
주님만이 주인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가 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고,
주님 묻히시는 곳에 우리도 묻히실 것입니다.

모두가 왕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갖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쓰나미에 휩쓸려갈 지라도 갖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소망하신 나라,
주님께 가르치시고 실천하신 나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신 나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질 우상에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특권층이 아니라, 지배 계급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발을 씻기는 종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자람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복된 땅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아파할 때 우리는 편히 쉬지 못할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외로워할 때 우리는 웃지 못할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굶주릴 때 우리는 일손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신음할 때 우리는
편히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
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나무를 심고 승리의
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보편적 가치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과 함께 손잡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춤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가르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위한
알곡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이웃 교회와의 하나됨이 되어
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됨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으로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인간의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뿐입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박원호 담임목사

> 1면에서

표어로 되돌아본 27년, 주의 말씀위에 서라

1990년 처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표어가 세워졌고, 주일에 배를 YMCA 4층 대강당에서 드리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임직식이 있었다. (장로 3명, 안수집사 4명, 권사 2명)



1996년 “기억하라”는 말씀아래 정신여고와 강당신축 및 사용에 합의를 이루어 정신여고 4층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1998년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말씀아래 정신여고 대강당인 김마리아홀을 지어 기증한 후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주님의교회에는 좋은 형식도 가져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건강한 신앙내용을 가진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났다.



2003년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라는 말씀 아래 무지개축제, 유소년 축구클럽, 어와나클럽, 방과후학교 등 청소년 지원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이후 교회가 성장하며 길가에교회(2005), J주님의교회(2011) 등 형제교회가 세워지고 교육과 의료가 통합된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주님 주신 생명구원의 소명을 다하기 위

올해 주님의교회 표어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다. 창립 초기였던 1991년 표어도 “나를 보내소서”였다. 근 한 세대 뒤에 같은 표어가 채택된 데에도 주님의 뜻이 들어 있을 터,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표어를 통해 지난 27년의 역사를 돌이켜본다.

연도	표어
1990	내 앞에서 행하라 (창 17:1)
1991	나를 보내소서 (사 6:8)
1992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1993	너희는 먼저 (마 6:33)
1994	바라보라 (창 13:14)
1995	자유를 공포하라 (레 25:10)
1996	기억하라 (전 12:1)
1997	예비하라 (눅 3:4)
1998~2000	새 일을 행하리라 (사 43:18~21)
2001~2002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5)
2003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2004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행 1:8)
2005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창 37:5)
2006~2007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시 32:11)
2008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엡 4:13)
2009	주 안에서 하나라 우리 함께 기뻐하세 (시편 133:1)
2010	예수의 친구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리라 (요 15:15)
2011	기도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눅 23:38)
2012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2013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 60:1)
2014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롬 5:10)
2015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함이었다.

2008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말씀아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를 위해 헌신하는 알곡공동체가 되고자 12단계 성경공부, 목적이 이끄는 40일, 겨자씨모임 등이 기존의 형식들을 정비하며 시작되었다.

2010년 “예수의 친구되어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리라”라는 말씀아래 시작된 예수친구사역은 전 교인들이 제자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였다.

2011년 “기도로 다음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말씀아래 사단법인 섬



김과 나눔이 설립되어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2015년 주님의교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것은 1991년 “나를 보내소서”라는 초창기 교회 표어와도 일치한다. 바로 주님의교회에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초창기 행함과 헌신과 고백의 모습을 필요로 하는 성도의 소명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있는 교회공동체”는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교회상이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공동체, 보편적인 교회공동체는 인간에 의해 생겨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공동체이다. 친교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이며, 이러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섬김을 실현해 가는 교회이다.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친교와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주님의교회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전교인 수련회

비아 돌로로사, 주님 걸었던 길



전교인수련회가 열리는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넓은 대지 위에 숙박과 세미나, 체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오는 7월 23일에서 25일까지 국립 평창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리는 2015년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차분하게 준비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체험해보는 ‘비아 돌로로사’이다. 약 2km에 가까운 길을 따라 예

수님의 행적을 기리고, 참여자 전원의 십자가 체험을 포함한, 은혜가 충만한 여러 행사와 모임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 결과 약 천여 명의 성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련회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최상인 장로는 메르스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많은 성도가 참여 신청을 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 만의 하나라도 보건과 위생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 및 주변 환경의 방역 및 사고 예방 조치에 역점을 두고 만전을 기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령 별로 일정을 구분하여, 청년, 청소년과 어린이분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창립27주년 기념 음악회



주님의교회 창립27주년 기념음악회가 6월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임마누엘 찬양대와 주오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주님의교회 예배당에서 드러졌다.

비발디 “글로리아”의 웅장하고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가 거의 150여명의 가까운 인원이 어우러진 찬양과 연주로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교우들

이 참석하지 않으리라는 우려를 깨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창립기념 음악회를 성대하게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렸다.

지휘: 김창재, 오르간: 김성희, 피아노: 채주연, 소프라노: 임다빈, 신소연, 알토: 천민정, 남수지

함글함글

청년부 여름 사역

올 여름, 청년부 여름 사역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시98:8)을 바탕으로, 하계 수련회(7.23~25)가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라는 주제로, 고훈 목사를 초청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헝가리 해외선교(7.21~30)는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청년축제를 경험하기 위해 진행된다. 마중물 선교(8.7~12)는 Z국에

서 비전트립과 평강공주 사역, 어린이 성경학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해외선교(9. 25~30)는 빈롱 지역에서 사랑의 집짓기, 어린이 성경학교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제13기 결혼 예비학교

지난 6월 7일 주일 오후 4시, “준비된 결혼이 행복하다”라는 모토의 제13기 결혼예비학교가 힘차게 문을 열었다.

문희삼 목사의 “하나님 나라와 신혼 가정”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전지원 강사의 “말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이정민 강사의 “젊은 듯 다른 우리” “가난한 듯 부요한 우리”, 이주성 원장의 “친밀한 부부의

성”등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가정을 꿈꾸는 12커플이 3주간의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막연했던 가정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실천적 과제와 풍성한 먹거리들이 자연스럽게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결혼 예비학교는 하반기에도 개설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76

聖幕(성막)의 器具(기구)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25장9)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출애굽기31장4-5)

器具(기구)의 種類(종류)

완성된 성막 안에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한 기구로는 言約櫃(언약궤) 또는 證據櫃(증거궤)라고 부르는 法櫃(법궤)와 揮帳(휘장), 陳設餅床(진설병상), 燈臺(등잔)과 金燭臺라고 부르는 燈臺臺(등잔대), 焚香壇(분향단)이 있고 성막 밖에는 燔祭壇(번제단)이 물두멍과 함께 놓여있다.

文字的(문자적)의 意味(의미)

★至(그릇 기): 많은 사람의 입을 상

징하는 口(입 구) 네개와 개 또는 짐승의 총칭인 犬(개 견)을 합쳐 ‘많은 사람의 입이 짐승의 고기를 나눠 먹으려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릇이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

★具(갖출 구): 돈이나 재물을 상징하는 貝(조개 패)에 양쪽 손을 뜻하는 卍(두 손 공)을 결합시켜 ‘돈을 두 손에 가졌으니 뭐든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21



비전 트립, 키르기즈스탄 선교를 위해서 팔순이 넘은 노 권사님들이 한 코 한 코 정성과 사랑으로 수세미 뜨개질 하는 섬기는 손.

함글함글

목회 칼럼

초월을 꿈꾸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열려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과거와 현재의 삶에 의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 역시 과거나 현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에게 미래는 과거나 현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꿈이 허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꿈꾸는 사람이 된 이유는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꿈꾸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해 불화하고 갖가지 시험과 악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밝은 세상, 새로운 미래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의 미래를 향해 있었고, 초월적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불의와 모순을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그 불의와 모순에 맞서 저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꿈을 담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 초월의 세계를

미리 내다보도록 우리를 초청하며, 불의와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읊조리면서 예수님의 꿈에 나의 꿈, 우리의 꿈을 연동시키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초월의 미래를 지금 이 땅의 현실에 앞당겨 가져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초월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형 목사

사역 간증

예수친구사역 경건 훈련을 다녀와서

지난 6월 19부터 20일까지 1박 2일의 경건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햇살이 아름다운 오후, 교회에 모여 함께 출발한 우리들은 마치 소풍을 가듯 즐거움 속에 출발했고, 도착해서 먹은 맛있는 저녁식사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우리를 더욱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코이노니아, 영성특강, 팀별 나눔의 시간 등등, 우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첫 사랑과도 같았던 주님과

의 만남들을 기억해내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해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룩한 독서라 불리우는 렉시오 디비나, 아침 산책을 통한 개인 묵상의 시간 등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모인 우리는 두 번째 코이노니아 시간을 통해서 짧은 경건훈련기간이었

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작은 결단의 이야기들도 나누었습니다.

모든 순서 순서를 충분히 누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아쉬운 마음이 많았지만, 가락재 영성원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고 돌아오기엔 딱 알맞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속엔, 하나님의 마음과 제자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아직도 나는 어느 여름밤의 꿈처럼 가락재에서의 시간과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 대못 박힌 흥물스런 십자가 그리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아 우리에게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고 보여주시던 그 십자가를... 그리고 그 평안함을...

기분 좋은 꿈처럼 기억하며 주님의 친구 되길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혜정 집사/예친사 4기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18

교표, 조선글로 정신이라는 두 자

정신여학교 교표는 1927년에 제정되었다. 이날 조선일보는 교표제정을 다음과 같이 전국에 타전하고 있다. 일개 여학교의 교표제정을 일간신문이 머리 기사로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다음은 기사의 일부이다.

‘조선글로’ 정신이라는 두 자의 머리 ‘ㅈ, ㅅ’을 떼어, 백의민족

의 나라의 의미를 표시하는 흰 바탕에, 조선국화인 무궁화 빛으로 글자를 쓰게 하였다는데, 이는 곧 고려인의 정신을 영원히 보전하는 뜻이라더라.’(“마크,” 「조선일보」 1927년 12월 14일)

정리하면 조선글로 정신의 첫 두 글자를 사용했고, 글자색은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하였으며, 바탕은 백의민족

의 흰색을 사용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하에 창씨개명, 내선일체, 황민화정책을 펴며 민족 말살을 꾀하던 때에, 어느 누구도 감히 조선인과 조선말을 드러내놓지 못하던 때에, 조선글로, 무궁화 빛으로, 백의민족의 정기를 담은 흰색으로, 학교 교표를 만든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압제 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민족 정신을 보전케 하



정신여학교 교표 제정을 알리는 신문 기사

는 정신여학교의 교표제정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2015년 항존직 선거 일정 확정

2015년 항존직 선거 일정이 확정되었다. 6월 정기 당회에서 의결된 올해 일정에 의하면, 예년과 같이 8월중 추천투표, 9월의 당회 공천 투표, 10월의 공동의회 선거를 거쳐 10월 18일 최종 선거 결과가 공고될 예정이다.

2014년 제정된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항존직 선거에서는 최종적으로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임기제인 장로직의 경우, 현재 시무 장로들 가운데 2~3년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많아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할 역량 있는 신임 장로가 긴급하게 요청되는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 항존직으로 피택될 수 있는 장로 피택 후보자는, 세례, 입교 후

7년과 주님의교회 등록 10년이 경과하고, 만 40세이상 65세 미만이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성도이다. 안수집사와 권사의 경우는 세례, 입교, 교회 등록 5년이 경과하였으며, 만 30세 이상 70세 미만인 성도로, 안수집사의 경우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남자 성도, 권사의 경우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여자 성도이다.

피택 후보자의 추천은 은퇴/시무장로, 시무/은퇴 안수집사, 시무/은퇴 권사, 협동장로, 겨자씨인도자, 제직부서 부서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공천투표는 당회원이 담당하게 된다.

함줄함울

2015년 항존직 선거일정

구분	내용	일자	비고
선거제도 공고	2015년 선거시행 공고 (전교인 선거일정 홍보)	6/28 (일)	게시판,함줄함울 등 공지
추천투표	추천투표 준비 (추천권자, 피추천 대상자등 명부작성)	8/23 (일)	
	추천투표 실시 (항존직등 중직 직분자)	8/30 (일)	
당회공천 투표	항존직 선거를 위한 당회원 기도회	9/14 (월)	
	당회원 공천투표 실시	9/14 (월)	
공동의회 선거	소집공고	9/27 (일)	
	공동의회 개회, 1차선거 실시	10/4 (일)	
	1차선거 결과 발표 및 2차선거 공고	10/7 (수)	
	2차선거 실시	10/11 (일)	
	2차선거 결과 및 최종결과 보고	10/14 (수)	
	공동의회 폐회	10/14 (수)	
	선관위, 당회에 선거결과 보고 최종 선거결과 공고 (전교인 공지)	10/17 (토) 10/18 (일)	게시판,함줄함울 등 공지

임직 소감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뜻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2015년 06.28 3부 예배 끝날 무렵, 장로임직과 관련 아내 이영란 권사와 같이 선서식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순간들이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갔다.

6.25전쟁이 미쳐 끝나지 않아,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 피난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굶지 않고 성장케 해주신 주님, 국민 소득 백 불이 되지 않은 이 나라에 태어나 이만 불 시대의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주님,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공부시켜 주신 주님, 은행을 거쳐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합격과 승진을 시켜주신 주님, 무엇보다도 보잘 것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으나 믿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등록케 하여 체계적으로 성경공부를 하게 하신 것,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하니 주님의 은총이었다. 실로 주님께선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애써 주셨던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제 빛진 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야겠다고 결단했다.

그러나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다. 주께서 지금까지 같이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두

렵고 떨릴 때 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우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심동욱 장로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그러나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린도 전서 15:10)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창립27주년 기념식과 함께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게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한편 예정하신 섭리대로 청지기의 직분을 명하셨다면 하나님나라 영광을 위하여 달음질하겠습니다.

게으르고 불충하고 불순종하여 무익한 여종이 오나 회개하면서 새 각오를 다져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기도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 따라 헌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갚으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 는 주님의교회와 성도님들을 주께 하듯 섬기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의로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기쁨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

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박문숙 권사

온전히 순종하는 삶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주님께서서는 가정, 직장 및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한 때 필요한 것 모두 아시고 채워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의 형식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간구해 왔다. 마치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이 말하는 영어는 못 알아들은 체 내가 필요한 영어만 겨우 하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는다.

감히 주기도문을 모방할수조차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정결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에 힘쓰고 내가 원하는 것 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더욱 간구하는 참된 기도의 자세를 배워가고 싶다.

정종기 안수집사

 임직자명단

주님께 헌신하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창립 27주년을 맞는 6월 28일 3부예배에서, 신임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28 명의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2014년 10월의 항존직 선거에서 피택되어, 지난 1년간 피택자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날 안수를 받았다. 앞으로 교회 안팎의 사역 현장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될 신임 항존직을 소개한다. (생년월일순)

장로 (1명)



심동욱

안수집사 (14명)



이성훈



김유기



문창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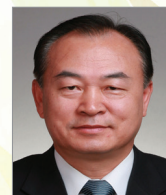
이상선



신태군



방정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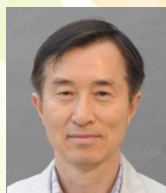
전선재



김유남



김요섭



김찬귀



전윤식



박상돈



정종기



양현주

권사 (13명)



엄혜숙



송영희



성옥환



조정애



유순의



엄순남



곽병남



이광실



박문숙



조보연



조유경



전숙정



남현숙A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글함글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이탈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선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악한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여 온 이야기가 바로 교회사임을 슬픔 속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기독교'로 미끄러져 내려왔고, 교회는 그 타락의 종착점이 되어왔음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6:46)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스스로 '주님의교회'임을 표방하며 27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시기가 지나는 동안, 주님의 인도에 따라 창립 정신이 공동체 안의 고민과 합의를 거치면서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제도는 남아 있되 주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가졌던 깊은 성찰과, 교회 안팎의 일상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실천하려던 열정은 빛이 바랜 듯합니다.

이에 초심을 되살려,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날로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주님이 주신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함글함글에서는 다음 호부터, 아래 주제 순으로 교회 안팎 기고자의 글을 수록하고, 이에 대해 관심 있는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을 그 다음 호에 수록하는 방식의, 지상 토론 공간을 마련합니다.

1.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임기제, 무기명헌금, 50대 50, 교회건물의 무소유, 청소년 사역 등 주님의교회의 제도로 표현된 정체성의 내면을 깊이 있게 성찰해보고,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옳은가를 살펴봅니다.

2.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한국교회사를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형성과정과 영향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봅니다.

3.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 관행, 공동체의 실천적 일상 등을 정체성에 비추어 살펴봅니다.

4.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교회 밖 누군가가 바라보는 주님의교회, 즉 인접교회, 교단, 학교 등과의 관계에서 주님의교회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5.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한국 당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바라본 주님의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알아봅니다.

6.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이런 여러 상황과 관점을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기고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신앙상담

-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쉽니다.

7월 교구 기도회 일정

- 7월 10일 (금) 오후 8:00
- 1교구(소예배실), 4교구(소년부실), 7교구(사랑나무실), 9교구(초등부실) 10교구(자모실)

유학생을 위한 입교 및 세례예식

- 7월 26(주일) 3부 예배시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유학생
-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010-4322-9917)

제7차 청소년초청 여름신앙캠프

주 제: 나는 주의 친구

일 시: 7월 30일(목) 오후 2시~8월 1일(토) 오후 1시

장 소: 주님의교회(잠실 정신여고 내)

신청대상: 10명 미만인 미자립교회 청소년 우선

인 원: 100명(선착순, 조기마감됩니다.)

회 비: 1만원(반환되지 않습니다.)

주 관: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C.Y.M)

신 청: mirinai-s@hanmail.net 신청시 교회, 교역자 이름과 연락처, 참석자 이름을 보내주십시오.

신청기간: 7월 11일까지

(문자신청: 서아령 목사 010-8546-6880)



Kingdom Vision English Camp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나라는
흥미로운 모험과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의교회 '킹덤비전영어캠프'에서
그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경험하세요!

✓ 새로운 ESL 교재
✓ 실생활에 사용되는 회화학습
(병원, 우체국, 은행 등)

As your children improve their English conversation,
they help improve the lives of children in Honduras!

일시 : 8월 3~13일 / 9:00~5:00 장소 : 주님의교회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문의 : 박찬전도사 (010-3295-0858)